

산항동 용별

느티나무 토질과 뿌리 보호를 위한 토론회

2023.1.12 (목) 오후 2시
일산동구청 다목적교육장(2층)

 고양환경운동연합





주제발표

삶의 동반자, 산황동 느티나무 어떻게 마을과 함께 할 것인가? 홍석환(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
---	---

토론

01 살아야만 유산이 되는 나무 “보호수” 김진환(마이즈텍 대표, 뿌리생리학 전문가)	20
02 현장 우종영(숲 치유사, 천연기념물 및 보호수전문 나무의사)	30
03 산황동 보호수 관련 자료 김종천(고양시청 녹지과장)	31
04 땅 아래를 직시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 김양진(한겨레21 기자)	32
05 우리를 지켜온 나무, 우리가 보살펴야 하는 보호수 최진우(가로수시민연대 대표, 생태다양성재단 이사)	36

느티나무 토질과 뿌리 보호를 위한 토론회

2023. 1. 12(목) 오후 2시
일산동구청 다목적교육장(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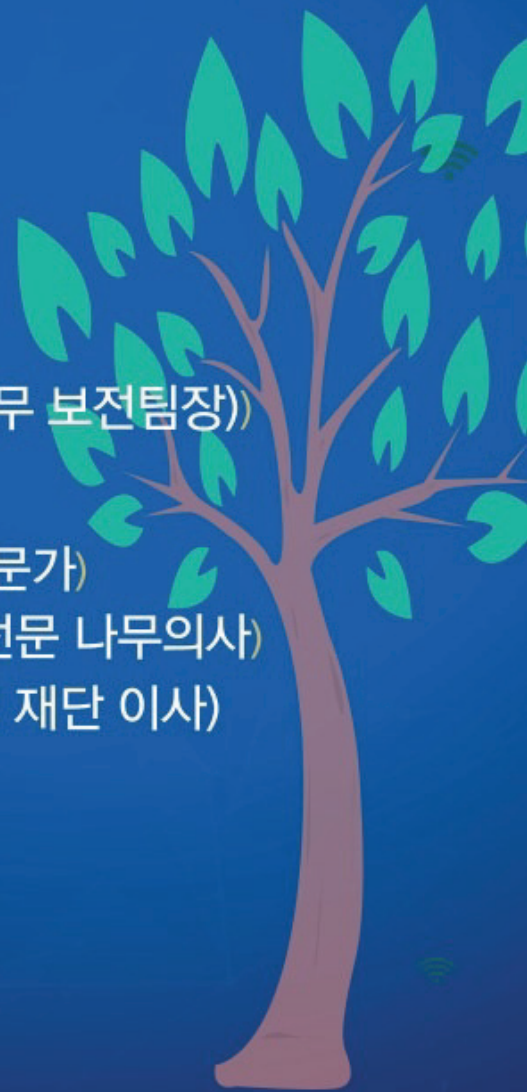
주최 고양환경운동연합

좌장 김경희 (고양환경운동연합 산하동 느티나무 보전팀장)

발제 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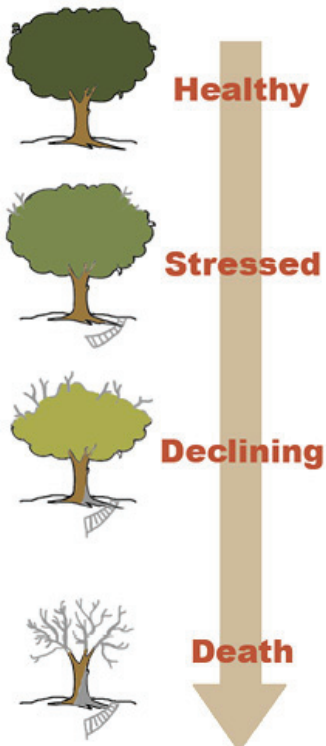
토론 김진환 (주)마이즈텍 대표, 뿌리생리학 전문가
우종영 (숲치유사, 천연기념물 및 보호수전문 나무의사)
최진우 (가로수시민연대 대표, 생태다양성 재단 이사)
김종천 (고양시 녹지과장)
김양진 (한겨레21 기자)

문의 고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 031-921-7001



삶의 동반자, 산황동 느티나무 어떻게 마을과 함께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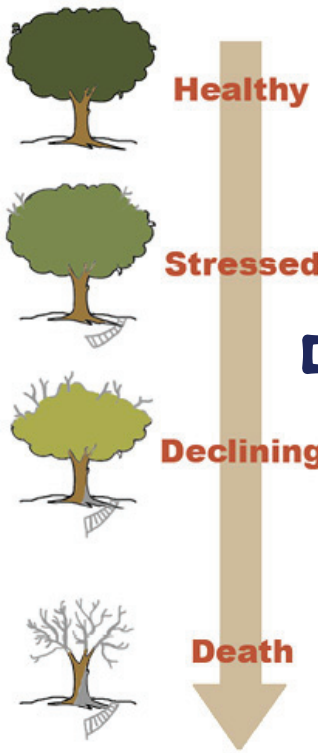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산황동 느티나무 역사







마을 나무는 어떤 존재인가?

1. 비보 : 마을의 부족함을 채움 (상징성 의미)
2. 풍수 : 열악한 자연환경의 개선 (실질적 의미)
3. 종교 : 나무 자체를 신성시하는 샤머니즘
4. 생활 : 농경사회 마을 휴식공간이나 광장공간



산황동 느티나무는?

노거수의 문화적 가치?

나무권리선언문

생명의 소중함을 담은 나무권리선언으로
공공수목관리에 대한 기본 이념을 바로 세우고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2019. 3. 28.

고양시장 이재준

사진: 최병선

제1 조 > 나무는 한 생명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제2 조 > 나무는 오랫동안 살아온 곳에 머무를 주거권이 있습니다.

제3 조 > 나무는 고유한 특성과 성장 방식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제4 조 > 숲은 나무가 모여 만든 가장 고귀한 공동체이며 생명의 모태입니다.

제5 조 > 나무는 인위적인 위협이나 과도한 착취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제6 조 > 사람과 나무는 벗이 되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제7 조 > 나무의 권리는 제도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사진 최병선



Healthy



Stres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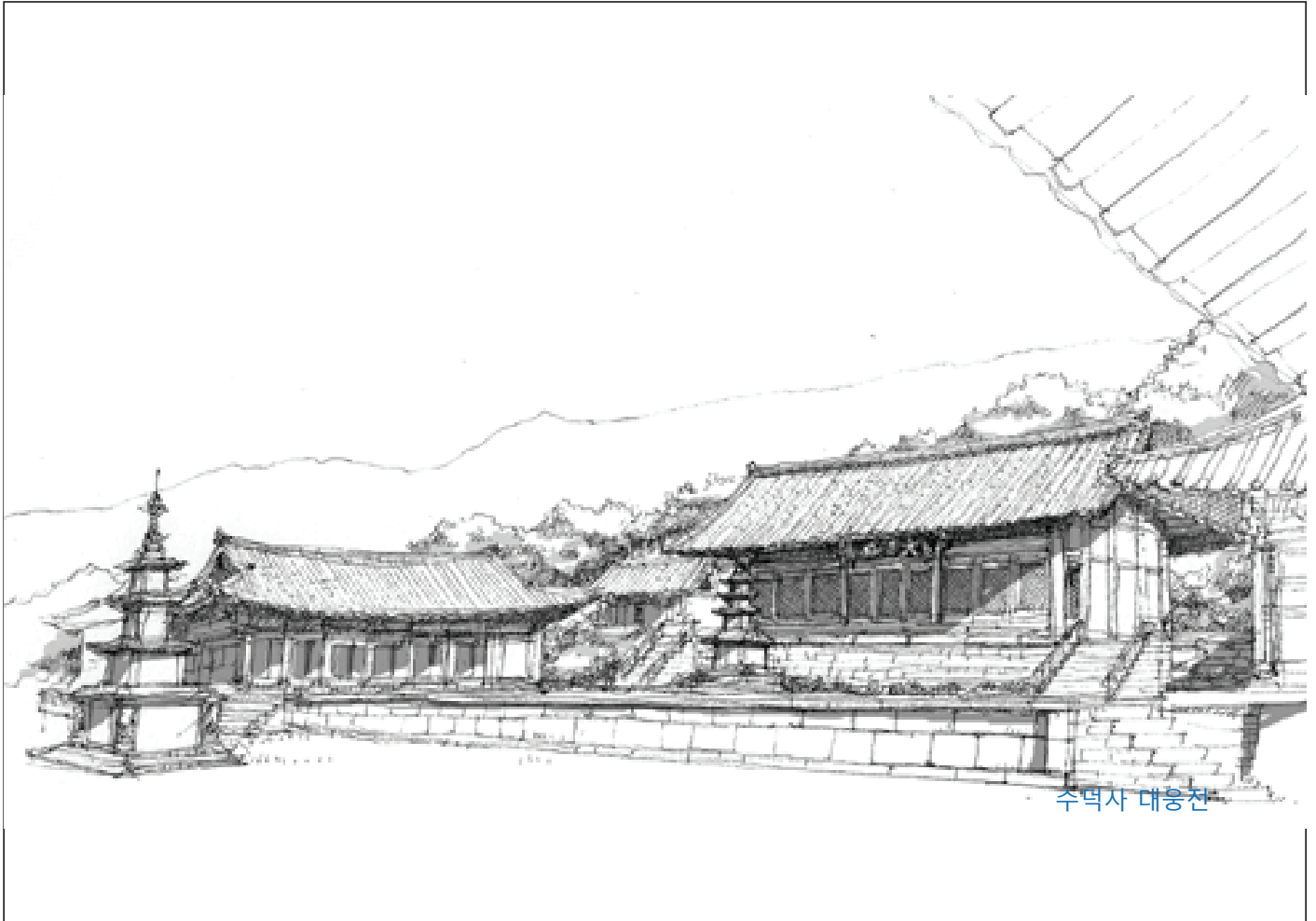
Declining



Dea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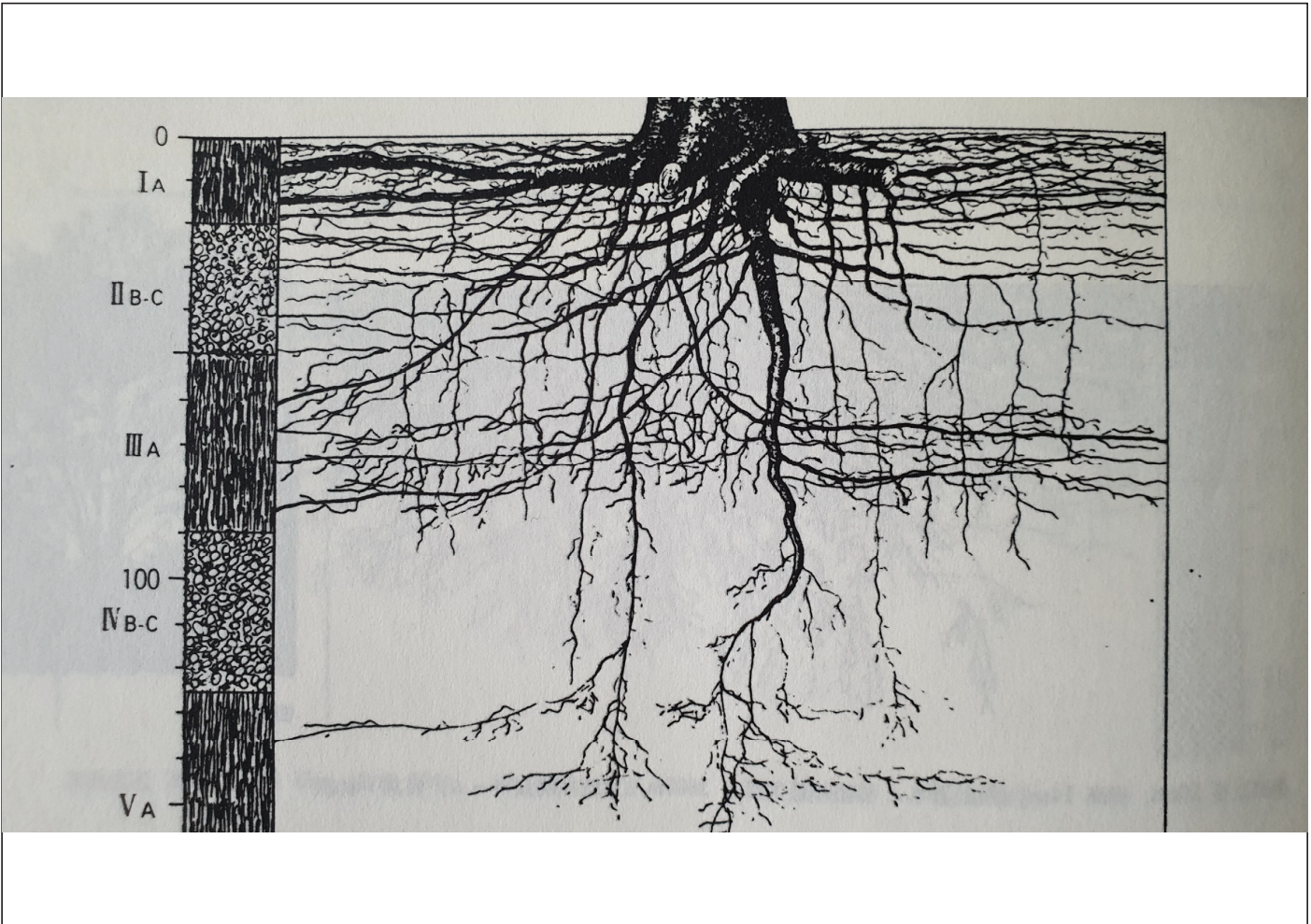
느티나무

고유한 특성과 성장방식



수덕사 대웅전





- 사질토, 양토, 점토에서 모두 잘 자람. 단,
- 기본적으로는 토심이 깊고, 배수가 잘 되고 습윤한 토양 선호
- 토양 pH도 가리지 않으나, 약 알칼리성 토양(pH 7.5)이 이상적
- 반그늘도 좋으나 햇볕이 충분히 드는 곳

**양분이 충분히 모이는 계곡변,
완경사사면, 저지대 평지의 극상림**







Healthy



Stressed



Declining



Death

느티나무의 고난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2008(사진: 다음카페)
<https://cafe.daum.net/naegok12/46K2/17663?q=%EC%82%B0%ED%99%A9%EB%8F%99&re=1>





고양신문

온갖 풍파 겪은 650년 고목



이 나무에는 전해내려오는 전설이 있다. 조선왕조의 창업에 공이 컸던 무학대사가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 작업을 하던 중 명당자리에 심은 나무라는 것이다. 본래 3그루였는데 2그루는 죽고 지금은 한 그루만 남아 있다고 한다. 잎이 아래에서 위로 피면 흉년이 되고 위에서 아래로 피면 풍년이 든다는 말도 전해내려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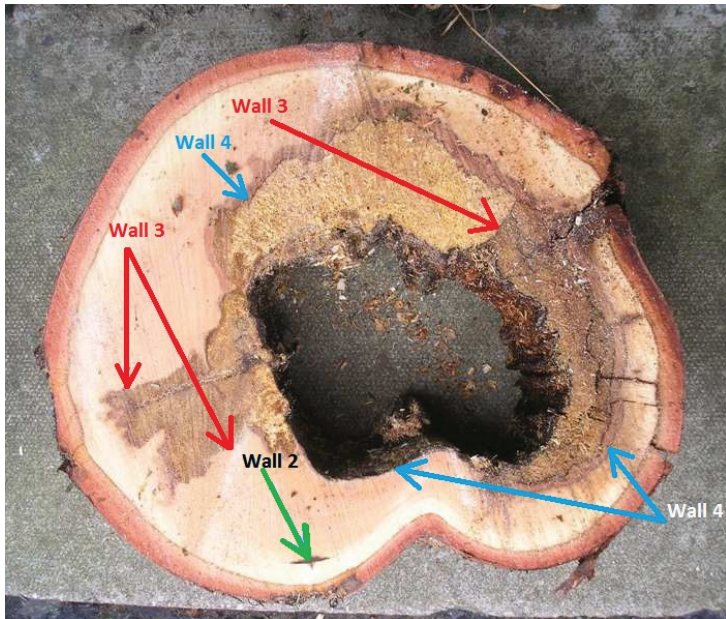
산황동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떠나는 않은 채 평생을 이 느티나무를 지켜왔다는 이용진(82세) 할아버지는 "저 느티나무는 원래 둥치 속이 비었었다. 어릴 때 동네 친구들이 둥치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무 높이 올라가기도 하며 놀았다. 때로는 나무에 그네를 메달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용진 할아버지는 이어 "왜정시대 일본 사람들이 수령 550년 이상된 나무라고 간판을 붙였었다. 8.15 해방 직후 큰 바람에 줄기가 부러진 채 옆길을 가로막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그 줄기를 잘라버린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곳 산황동 마을 주민들은 약 30년 전만 하더라도 떡이나 음식을 가져다 놓고 고사를 지내기도 했다고 한다.

이 느티나무의 관리 주체인 고양시는 나무 밑동을 비롯해 줄기의 부패한 부위를 파내고 인공적인 수피(나무 피부)를 입히는 외과수술을 해왔다.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담당자는 "2009년경 실시한 외과수술을 외에 나무의 생존을 위해 수목생장호르몬주사, 수목생리증진제 등 주사를 놓은 등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3년



나무의 부후 구획화



상처부위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상처 부위를 격리시키는 나무의 작용

Wall 1 = (표시되지 않음) 가장 약한 방어
나무 수직방향으로 부식이 퍼지는 것을 막기위한 벽
도관의 폐쇄를 통해 작동

Wall 2 = (녹색) 상대적으로 강한 방어
나무 수평방향으로 부식이 퍼지는 것을 막기위한 벽
주로 나이테 부분에서 장벽역할을 함

Wall 3 = (빨간색) 1차, 2차보다 강한 장벽
수간 둘레로 부후되지 않도록 저항
형성층에서 줄기 조직으로 뻗어있는 방사조직이 역할

Wall 4 = (파란색) 부후 확산을 막을 가장 강한 방어벽
상처 이후 형성층에 의해 만들어짐
부후부위와 살아있는 부위를 완전히 분리

영국 국가표준 수목작업 추천 (9.1항)

동공 충전은 나무 주변부의 구조적 강도를 개선시키지 못하며……

새 살이 돋는 것(Wall 4)을 방해한다.

또한 충전은 나무의 동물서식처 가치를 떨어뜨리고
향후 발생하는 나무의 이상을 파악하는 등의 점검을 어렵게 만든다

알렉스 샤이고 (근대 전정의 아버지)

나무에 상처 도포제를 바르거나, 딱딱하게 만드는 치료를 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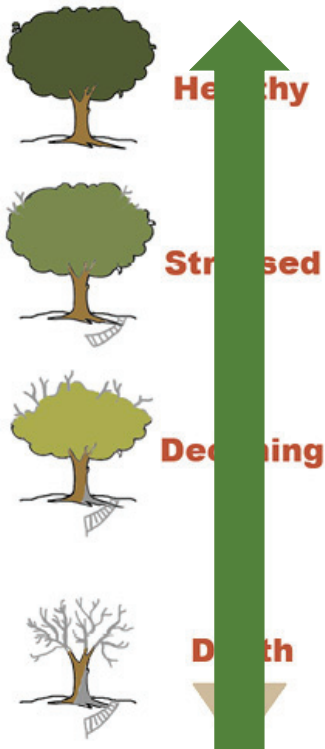
오래된 나무를 모욕하는 것으로, 나무를 모욕하면 안 된다.

우리는 나무가 품위 있게 수명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만 한다.

그 다음 새 나무를 심고 잘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현재 해야 할 일

부후 구획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 루트존 확장

수목은 스스로 상처를 격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수목의 구획화 노력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며,
에너지 고갈로 인한 고사 가능성 높아짐

주민과의 동행 : 마을광장 역할 재건

산황동 느티나무의 역할은 비보나 풍수적 성격보다는
마을 주민이 모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광장과 휴식공간의 역할이 강함
주민과 격리된 나무가 아닌 함께하는 나무로의 전환 필요

부후 구획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 루트존 확장

1. 루트존 토양상태 정밀조사 및 분석
2. 수목 주변 펜스 및 기초콘크리트 제거
3. 뿌리 능력에 맞는 지상부 유도 : 중요하지 않은 결가지 지지대 제거
4. 외과수술 우레탄 제거를 통한 자체치유 유도
5. 루트존지역 콘크리트도로를 투수콘 또는 그레이팅도로로 조정
6. 콘크리트 측구 개선을 통해 우수의 토양유입 유도

주민과의 동행 : 마을광장 역할 재건

1. 마을 주민 휴식공간 확보 (바닥면이 훼손되지 않는 상태 전제)

살아야만 유산이 되는 나무 “보호수” “무학대사가 식재한 경기도 1호 보호수 생육증진 방안”



사진출처: 블로그 빈손

김 진환 ㈜마이즈텍 대표

1. 사전적 의미

보호수란 “뿌리와 수간, 가지가 보호대상인 나무”로 선조로부터 살아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자연유산으로서 건강하게 생육시켜 후대에게 물려줄 생명유산을 말한다.



보호받으며 건강하게 자라 관광자원이 된 영국 Major Oak 보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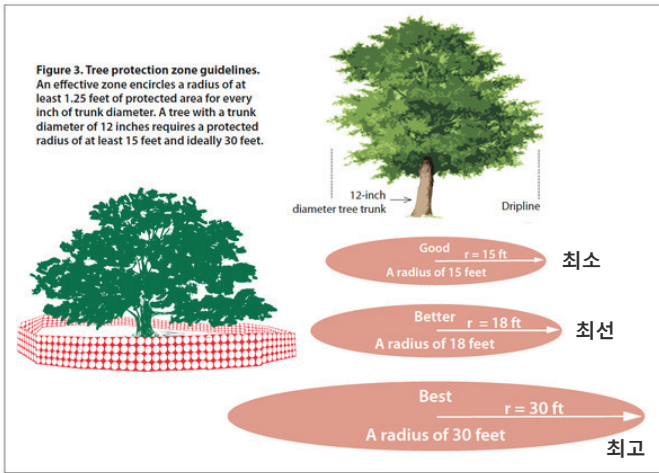


사진출처: 블로그 빈손

죽어가는 산황동 경기도 1호 보호수 관광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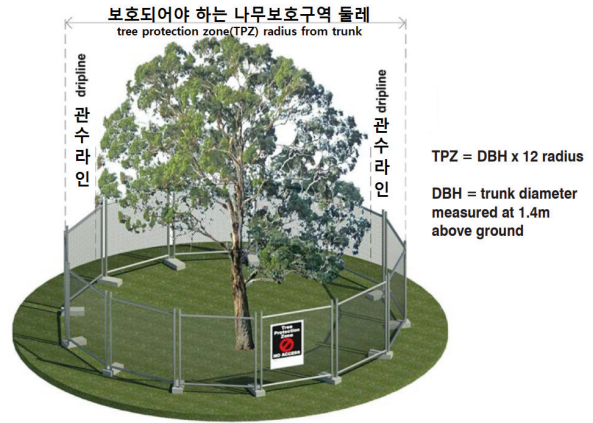
2. 물리적 의미

보호수란 지정만 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규격으로 보호하는 나무를 말한다



출처: <https://content.ces.ncsu.edu/construction-and-tree-protection>

미국 산림청 기반 노스캐롤라이나주 지침



The Australian Standard, Protection of Trees on Development Sites (AS4970 2009) defines a Tree Protection Zone as follows:

지상과 지하 모두 보호대상으로 규정한 호주의 표준의 최소 보호 구역

3. 표준 준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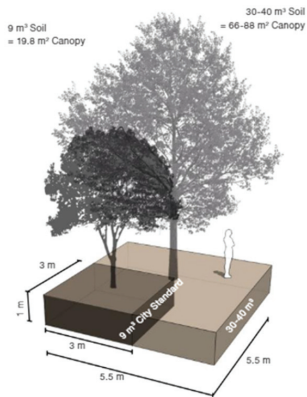
표준 규격으로 보호되는 영국의 Major Oak 나무(국내 표준 부재, 주무부처 산림청)



4. 표준 무시 사례

보호수 지정과 동시에 보호 표준을 수립하지 않는 산림청(외국의 무수한 사례 무시)

가로수 토양 표준(최소 9~최대 40m² 규격)



가로수조차 기준이 있다



5. 표준 준수와 표준 무시 사례 비교

보호구역은 사람의 보행으로 인한 답압을 방지하기 위해 울타리로 출입을 막아 토양의 경화를 막아야 한다. 특히 포장으로 인한 빗물유실(수분부족)과 통기 부족에 따른 뿌리 괴사를 막아 부후균 발생을 사전 예방한다.

표준 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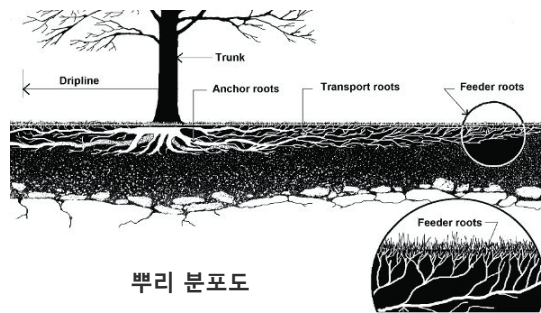
표준 준수



6. 뿌리 보호 표준 준수 이유

관수구역 이후 수송근(Transport roots)과 공급근(Feeder Roots)이자 미세근(Fine Roots)은 수분과 양분 흡수, 호흡을 하는 동물의 입과 코에 해당, 차단 시 뿌리 괴사로 이후 부후 발생 최종 고사로 이어진다.

표준 무시



뿌리 분포도

7. 오랜 착오를 통해 표준은 만들어졌다.

영국 사례 : 가지 괴사 후 사람 출입 금지와 밀봉(외과수술, 땀빵질) 제거 시행



1720년



1880년경



1890년경



1955년(밀봉)



2015년



2011년 보호시작



2010년(가지 대폭 절단, 밀봉 제거)

8. 보호와 동시에 자가 치유 시작

나무는 자연에서 1년에 1,000번 이상의 해충과 동물들의 공격을 받지만 스스로 치유한다.(동공 치유 기간 10년)



↓ 2016년



2018년



2019년 동공 치유 완료

9. 10년이면 족한 치유

나무는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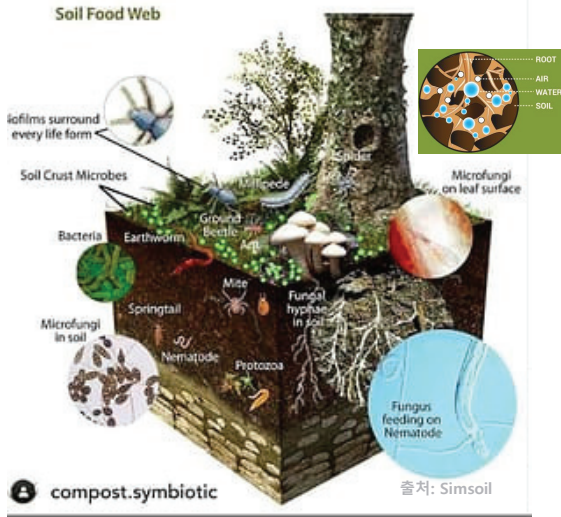
2010년 보호 직전



2019년 동공 치유 완료

10. 호흡을 막는 밀봉의 무서움

나무는 잎의 기공 뿐 아니라 뿌리 줄기 가지 등 모든 기관이 호흡한다.



토양은 숨쉬는 생명다양성의 소우주로 지상 생물 대비 26% 이상 차지하며 물마시고 숨쉰다.

느티나무 피목(Lenticel)

11. 호흡이 막힌 산황동 보호수 (의료사고, 배상 청구 가능)

산황동 고사지 실태



완전 밀봉된 산황동 보호수



동공내부는 혐기 상태가 되며 김치 숙성하듯 발효되며 매탄을 뿜어낸다(포항 보호수)

12. 밀봉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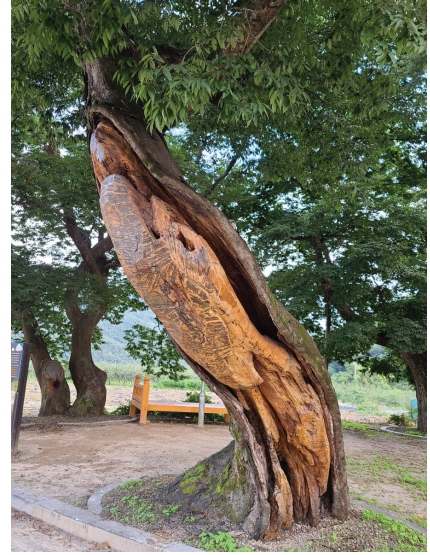
생육 개선



부후균 생육기반 수분 배출



통기성확보 부후균 증식 억제



심재 부후 정지

15. 복구

실리콘+ 우레탄 제거



새로운 수간 발달

15. 치료 수분공급(관수에산책정)



쫄그라드는 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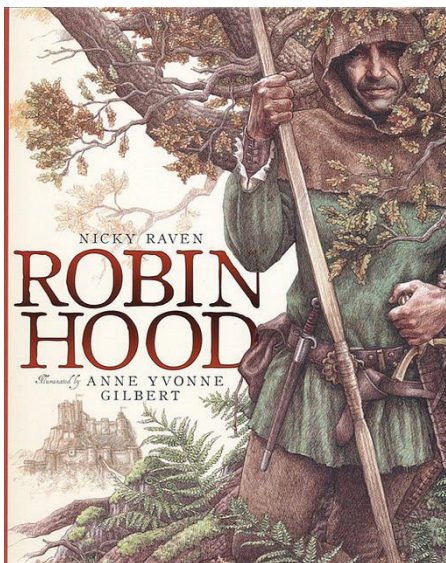
수분공급장치

펼쳐지는 수관

16. 보호수의 가치 (역사성은 관광 자원 최고의 스토리)

영국: 로빈후드가 올라가 활을 쏘던 나무

무학대사: 한성의 서북 산황산에 큰 나무는 길하다



17. 보호수의 가치 (역사성은 관광 자원 최고의 스토리)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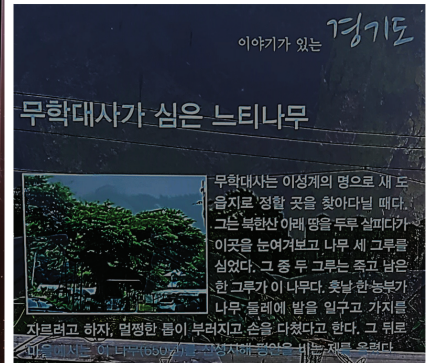


800~1,100살 된 나무로 오늘도 여전히 건강합니다.
It is still going strong today.

산황산



무학대사가 세 그루 심었는데 두 그루 죽고 남은 한 그루가 이 나무다
농부가 밭을 일구려 가지를 자르려 하는데 톱이 부러지고 팔을 다쳐서
(650살) 그 뒤로 신성시하며 제를 올렸다.



18. 지역 자원 (영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나무 1위)

더 메이저 오크

●●●●● 52 · 19위(노팅엄에 있는 144곳 나이트라이프 중) · 바 & 클럽

지금 열다 · 오전 10시 - 오후 11시 [웹사이트 방문](#) > [부르다](#) [리뷰를 작성](#)

사람들이 말하는 것

브라이언 T

"그냥 오래된 나무가 아닙니다"

●●●●● 2022년 1월

저는 셔우드 숲을 거닐며 메이저 오크로 알려진 잘 알려지고 많은 사랑을 받는 베테랑 오크 나무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레일라 헤일

"로빈 후드의 전설적인 은신처"

●●●●● 2021년 6월

그것을 보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 고대 참나무가 지지대에 의해 지탱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은 시간뿐입니다.

🔗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편집을 제안하십시오.

[이 목록 개선](#)



19. 지역 관광 자원 (썩어 아무런 가치조차 없어지고 있지만 살 수 있습니다)



왼쪽 가지 위에는 절단한 흔적이 있고 베어낸 나무가 나무 아래에 있어 살펴보니 가운데가 많이 썩어서 베어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소목 재료로 쓸 수 있나 하여 한참 살펴보았는데 심재는 다 썩고 변재만 남은 것 같아 포기합니다. 마을에서 또 신성시한다기에 썩은 나무도 주지 않을 것 같네요...

산황동 보호수는 무학대사 시절 토양 미생물도 나이트 속에 존재 합니다.



감사 합니다 !

그래서 고양시와 시민이 함께 역사를 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장발제

● 산황동 보호수 관련 자료 ●

1. 산황동 보호수 지정 현황

· 지정번호	경기-고양-1	· 지정일자	1982. 10. 15.
· 수 종	느티나무	· 수 령	650년 (지정당시 기준)
· 수 고	12m	· 가슴높이 둘레	9.2m
·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417번지		

2. 2023년도 산황동 보호수 관리계획

가. 관리계획

- 1) 병해충방제 : 주요해충별 · 시기별 방제작업 실시
- 2) 가지치기 : 고사지, 병해충피해지, 수형조절을 위한 가지치기 실시
- 3) 풀 베 기 : 보호수 주변 풀베기 작업 실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방 제			←----->									
가 지 치 기			←----->									
제 초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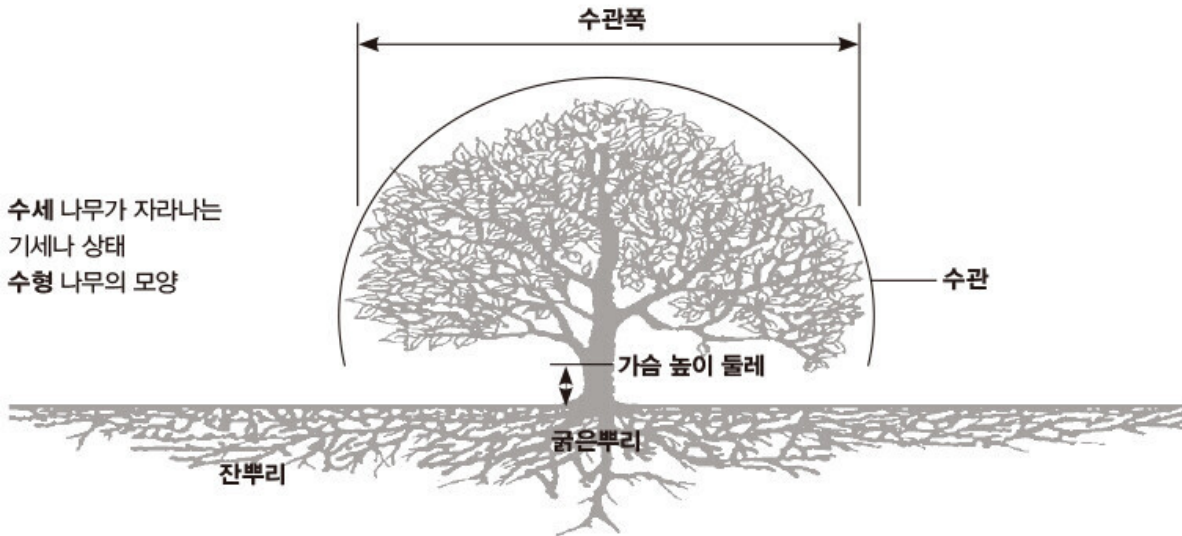
< 월별 관리계획 >

나. 향후 계획

- 1) 산황동 보호수 주변 토지매입 (약165㎡)
 - 기 간 : 2023. 2. ~ 5.
 - 소요예산 : 240,000천원
 - 내 용 : 공유재산심의, 지적분할, 감정평가 및 등기 절차 진행
- 2) 산황동 보호수 주변 쌈지공원화 사업
 - 기 간 : 2023. 6. ~ 7.
 - 사업비 : 30,000천원
 - 내 용 :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및 주민쉼터 조성

①잔뿌리는 나무의 '입'

나무 규격 표시



'나무의 잔뿌리는 동물로 치자면 음식을 먹는 '입'이다. 나무를 지탱하는 구실을 하는 굵은 뿌리에서 자라난 연한 잔뿌리는 흙 속의 빈 곳을 찾아 파고들어 틈틈이 자리잡은 물과 양분을 섭취한다. 특히 수관폭 아래 1.5~3 배 면적에 있는 20~30 cm 깊이의 흙은 나무의 잔뿌리가 양분과 수분을 가장 왕성하게 섭취하는 곳이다. (<한겨레 21>, 우영우 팽나무? 유명해지면 나무는 죽는다)

식물의 뿌리가 동물의 어디에 해당할까 생각해봅니다. 찰스 다윈은 식물의 뿌리가 동물의 뇌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이른바 루트-브레인 (root-brain)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8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창원 북부리의 팽나무를 취재한 일이 있습니다. 지역의 조경업체를 운영하시는 전문가분과 함께 드문드문 땅위로 올라와 있는



하얀 잔뿌리들을 관찰한 일이 있습니다. 경사면에는 더 쉽게 물과 양분을 찾아 고개를 내민 가여운 잔뿌리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드라마 인기에 따라 한달여 매일같이 수천~수만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와 수관 아래 토양을 밟아 이미 10~20% 때이른 낙엽이 진 상태였습니다. 여러 수목생리 전문가들을 취재하면서 나무의 잔뿌리가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동물로 치자면 ‘입’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잔뿌리=입’이라는 표현은 이 전문가들이 표현했던 건 아니고, 과학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런 표현은 삼갔습니다. 다만 이렇게 잔뿌리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어찌보면 멋대로 저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면 지표면 위만 보이고, 지표면 아래는 쉽게 상상하지 못하는 건 인간 인식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생각보다 지표면 아래쪽을 생각하면서 나무를 바라보는 일이 굉장히 ①어렵다는 것이고 한번 지표면 아래를 보기 시작하면 다시는 그 이전으로 ②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땅 아래를 의식하기 시작하면 고목나무의 수관아래를 밟을 때 죄송한 마음이 들고, 도로나 콘크리트가 덮혀 있을때 내 일처럼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한겨레 21> 표지입니다. 잔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복토가 나무를 죽인다는 얘기를 6 쪽을 썼는데도 표지에 잔뿌리가 없습니다. 디자인적인 면이 고려됐고, 굉장히 잘 만든 표지라고 생각하지만, 잔뿌리까지 그렸다면 어땠을까 아쉽습니다.

②땅 아래를 보는 일 어렵긴 하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또 시민들이 땅 아래의 세계에 대해 관심 갖도록 알리고, 공부하고 고민하는 것은, 시야를 넓혀 새로운 세계로 내디딜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살기 위해선 적당한 양분과 수분이 필요하고, 미생물과 지렁이 등 땅속 생물들이 땅을 비옥하게 하고 양분 수분 흡수를 돕는구나. 그러면 지표면 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나무가 잎을 잘 전개해야 곤충과 새가 마음 놓고 찾아와 쉴 수 있구나. 세상에 식물이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는 동물은 없구나 사람은 마찬가지구나...

“우리나라에서 재개발을 하면 가로수가 계속 죽어나간다. 그 이유는 조경이 나무 생리에 대해 무지한 토목건설업자 중심으로 굴러간다는 것이다. 토목건설업자들이 도로를 닦은 뒤 적당히 구멍을 파주면 조경업자는 동그랗게 뿌리를 자란 가로수를 구멍 속에 쓱쓱 넣는 일만 한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원로 수목전문가가 한 말입니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조경쪽 공무원들이 도시나 건설쪽 보다 입김이나 영향력이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히 조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 중심이 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나무 생리와 나무를 둘러싼 식생을 고려하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가로수 한 그루를 심더라도, 짜투리 공원을 조성하더라도 눈에 보기 깔끔하기 보다 나무와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철학을 구현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옛날하고 다르다. 많이 바뀌었다.” 조경이나 산림쪽 분들 취재하면 이렇게 방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를 지적하면 “민원이 많다”, “시민들이 원한다.”며 시민 탓을 합니다.

서울 남가좌동에 삽니다. 동네에 소유권 분쟁이 있는 짜투리 땅인데 버드나무 씨앗이 날아들어 지난 여름 어린 버드나무들이 어른 키보다 높게 자라 작은 숲이 됐습니다.(사진은 초여름)상가 앞이라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장소로 바뀌어 담배 꾀초로 오염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가을에 서대문구청은 담배 꾀초는 그냥 두고 버드나무만 깨끗하게(?) 베어버렸습니다.

잡초한테도 미안한 말이지만 잡초처럼 자란 버드나무들이 지저분하다고 민원을 넣었을 테고, 버드나무가 더 굵어지면 비용이 더 든다는 생각을 했을 테고, 1년생 버드나무 베는 일은

공공근로 등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멀리서 보면 시원합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수천개의 담배 꽂초들로 찌들어 있습니다. 이게 최선일까요?

③ 시민과 함께 하려면...

디디고 선 토양을 빼면 옹뿔 느티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땅 아래를 인식하며 아끼려면 많은 설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몇가지 생각나는 것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①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 이를테면 수관쪽 아래의 1.5~2 배 가량의 땅을 확보해 도로를 우회하는 손쉬운 일부터 해야 했으면 합니다.

② 이와 동시에 자라나는 학생들과 잔뿌리를 관찰해 나무를 아끼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등 다양한 활동을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③ 옹뿔 느티나무에 얽힌 무학대사 스토리 등 역사 콘텐츠와 함께 굽이 치는 가지가 뻗은 모습 등 옹뿔 나무의 생태적 특성 등을 공부-감상하고, 함께 나눠 보았으면 합니다. 이왕이면 시설물을 설치해 옹뿔 나무를 옹뿔 나무의 눈높이에서 관찰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④ 옹뿔 느티나무와 함께 살아가는 곤충과 새, 주변 산황산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⑤ 옹뿔나무의 낙엽이나 씨앗, 후계목들을 이용해 옹뿔 느티나무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보고 더 많은 시간 함께해 봤으면 합니다.

700 살 된 어른입니다. 땅 아래를 보는 것이 인간된 도리이자 세월에 대한 예의 아닐까요.

우리를 지켜온 나무, 우리가 보살펴야 하는 보호수

가로수시민연대 대표

최진우 박사

“산황동 느티나무, 어떻게 마을과 함께 할 것인가?”

홍석환 교수님은 발제에서, 산황동 느티나무의 역할은 비보나 풍수적 성격보다는 마을 주민이 모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광장과 휴식공간의 역할이 강하고 말하면서, 주민과 격리된 나무가 아닌 마을 주민 휴식공간(마을광장)으로서 함께하는 나무로의 전환과 동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산황동 느티나무의 토질과 뿌리를 살릴 수 있는 기술적인 해법보다 더 어려운 게 나무와 함께하는 마을주민 문화를 만드는 거다. 오늘날 고양시 시민은 더이상 농경사회에 살고 있지 않고, 마을의 오래된 나무를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졌다. ‘우영우팽나무’ 바람으로 마을의 오래된 나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현실과 이상의 간극은 크다. 그간 진행된 농촌마을 정비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수백 년 된 나무의 존엄성은 외형의 상처만큼이나 타격을 받았다. 지역주민의 관심이 멀어진 상태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연 1회 점검받는 수준으로 정상적인 관리가 어렵다.

산황동 느티나무는 1982년 지정당시 650살, 현재 나이 약 700살로 추정되는 고양시에서 가장 오래 살아 온 생명체이다. 이 느티나무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산황산이 골프장으로 완전히 개발되어 보전되지 못하면 느티나무 보호수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나무의 생육환경은 차치하고 마을의 보호수로서 그리고 고양시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로서 어떠한 존엄성을 가질 수 있을까. 산황동 느티나무는 본질적으로 산황산 보전운동과 운명을 같이한다.

오늘날 산황동 마을주민에게 느티나무와 함께하는 동행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영우팽나무’는 어느 농촌마을에서 볼 수 있는 현실이면서도 따라 하기 힘든 판타지에 가깝다. 100만 명이 넘게 사는 고양시에서는 산황동 느티나무가 아직 작은 점으로 인식될 뿐이다. 결과적으로, 산황동 느티나무 보호수와 산황산이 보전되기 위해서는 마을을 뛰어넘는 고양시민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하다. 오래된 나무의 존엄성을 도시민에게 어떻게 인식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시민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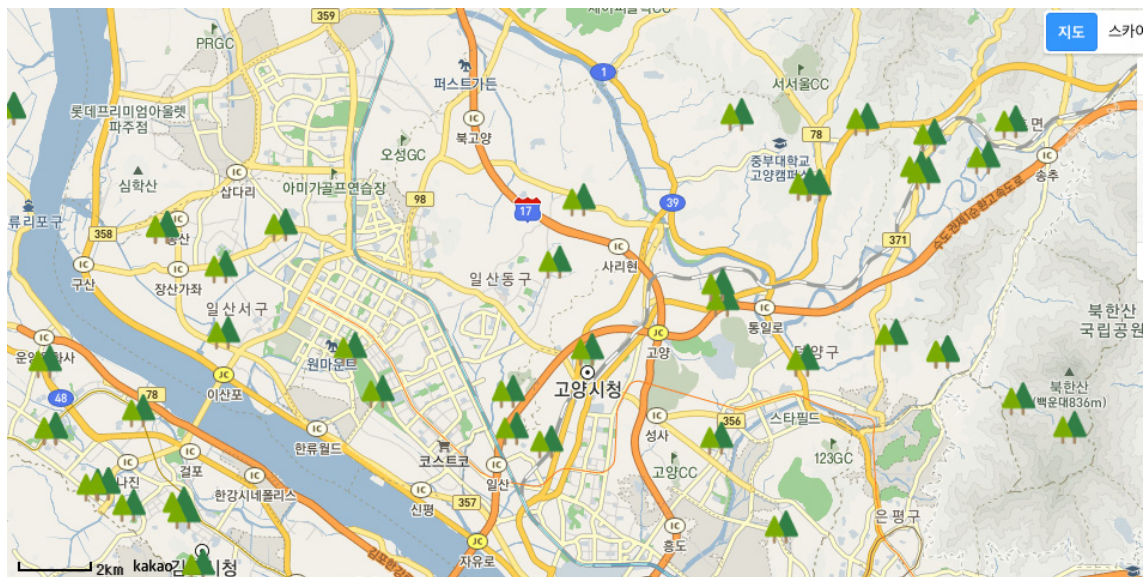
보호수는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하며, 산림보호법에 의해 도지사가 지정하는 나무이다. 경기도에는 무려 1,386그루의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다. 고양시에는 산황동 느티나무를 포함하여 은행나무, 귀룽나무, 향나무, 상수리나무, 회화나무 등 총 34그루가 지정되어 있다. 1호부터 35호까지 지정되었는데 9호, 24호, 25호, 31호는 해제되었는지 빠진 상태며, 13호 느티나무는 세그루, 28호 느티나무는 두그루가 지정

되어 있다. 그리고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수백 년 된 나무들이 마을에 더러 남아있다. 오래된 나무들은 대개 시가지 내부에 위치하여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으며 나무의 내력이 담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오늘날 주민들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크고 오래된 나무의 생태문화적 가치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의 관심과 태도에 달려있다. 이제는 나무를 사랑하는 시민이 나무와 공생관계를 돈독히 하고 보살피는 데 앞장서야 한다. 도시개발로 마을의 오래된 큰나무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새롭게 심어져 크게 자란 나무들도 있다. 아파트단지와 사잇길의 큰나무, 학교와 공공기관의 큰나무, 거리의 가로수들도 시민들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다.

고양시 보호수는 대개 300년생이고 600년생 이상 된 나무는 산황동 느티나무가 유일하다. 산황동 느티나무는 고양시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이다. 산황산을 지키고 산황동 느티나무를 극진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시민의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동네 나무를 대하는 태도에서 반영될 수 있다. 도시 마을 곳곳의 보호수와 큰나무에 대해 주민들이 조사하고 기록하고 의미를 담아낼 수 있다면 그 정점에 고양시 마더트리로서 산황동 느티나무의 존엄성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 보호수 분포도>



*자료출처: 경기데이터드림(<https://data.gg.go.kr/>), 보호수현황(개방표준) 2022-10-18.

<경기도 고양시 보호수 지정 목록>

지정번호	지정일자	유형명	나무종류	그루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둘레	지목	소유	소재지지번주소
1	1982-10-15	노목	느티나무	1	650	10.2	3.2	대	개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향동 417번지
2	1982-10-15	노목	은행나무	1	520	14.4	1.9	대	개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105번지 가좌마을7단지아파트
3	1982-10-15	노목	느티나무	1	520	25	5.1	임야	개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002-3
4	1982-10-15	거목	은행나무	1	300	25	3.2	전	개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413-26번지
5	1982-10-15	노목	은행나무	1	450	13.8	1.9	임야	개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430-2
6	1982-10-15	거목	은행나무	1	350	25	4.5	전	개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413-26번지
7	1982-10-15	거목	회화나무	1	200	20	3.9	공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906
8	1982-10-15	거목	느티나무	1	200	20	3	대	개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49번지
10	1982-10-15	거목	느티나무	1	150	18	3.2	대	개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04번지
11	1982-10-15	희귀목	향나무	1	400	8.5	0.6	대	개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139-25번지
12	1982-10-15	노목	은행나무	1	500	24	6.7	임야	개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55-10
13	1982-10-15	노목	느티나무	3	500	20	4	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35-1번지
14	1982-10-15	노목	느티나무	1	500	15	1.8	임야	개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산32-3
15	1982-10-15	거목	은행나무	1	100	20	2.4	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594
16	1982-10-15	희귀목	향나무	1	350	7	2.3	대	개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389-4
17	1994-05-12	희귀목	귀룽나무	1	140	23	2.4	임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5번지
18	1982-10-15	희귀목	향나무	1	350	8.5	0.8	대	개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59-7번지
19	1982-10-15	거목	느티나무	1	300	10	4.4	대	개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차동 723-1번지
20	1982-10-15	거목	느티나무	1	300	26	5.3	구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684-2
21	1982-10-15	거목	느티나무	1	200	20	3.4	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550
22	1982-10-15	거목	회화나무	1	250	15	2.6	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325-3
23	1982-10-15	거목	회화나무	1	250	20	2.4	대	개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427번지
26	1982-10-15	거목	느티나무	1	100	20	2.6	임야	개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산14-1
27	1982-10-15	거목	느티나무	1	200	15	4	임야	개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11-6번지
28	1982-10-15	거목	느티나무	2	120	18	3	임야	개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348
29	1982-10-15	거목	느티나무	1	120	15	2.4	종교용지	개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203
30	1988-10-28	거목	상수리나무	1	250	12	3.3	종교용지	개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03번지
32	2003-08-01	노목	느티나무	1	450	32	3.7	종교용지	개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203번지
33	2004-07-02	거목	느티나무	1	400	17	5.4	임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10-1
34	2011-09-01	거목	회화나무	1	200	15	1.2	임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00-1번지
35	2019-05-24	노목+거목	회화나무	1	200	20	1.1	공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906번지

*자료출처: 경기데이터드림(<https://data.gg.go.kr/>), 보호수현황(개방표준) 2022-10-18.